

특별기고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



우린 크고 작은 사고에 '팔자' 소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팔자라는 단어는 동양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사의 모든 일을 설명하는 마법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기성세대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벌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팔자러니”하며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촘촘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팔자로 여겨지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개인의 태어난 날의 천체의 위치를 기록해서 길흉의 기운이 오는 때와 장소 등을 알아보려고 했고 그 흥한 기운을 피해가려 했다. 즉, 팔자라는 개념은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된 개념인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서양 학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A. Maslow)는 1943년 ‘인간 동기의 이론’ 논문에서 욕구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시스템

5단계설을 주장하며, 인간이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를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위치시키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동·서양의 학문적 고민은 모두 안전을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연구된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상황이 다르다. 위험은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으며, 결과도 끔찍한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는 잘 짜여진 사회 시스템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다. 우리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울타리를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안전정책을 총괄해 75개 재난 유형별 168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생활 속에서 안전 문화 실천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고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포함해 총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전 연령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시스템으로는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아 안전신고 활동을 펼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등이 있다. 우리시는 생활 속 안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의 가족인 근로자와 시민이 일선 산업현장

과 공공의 영역에서 안전사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안전교육과 점검 등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재난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재난을 스마트하게 대비하고, 영리하게 풀어나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개인과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재난안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 맞춤형 안전 사업 발굴

수많은 법, 시스템과 조직이 정비되어도 제도의 성공은 결국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개인의 열정과 참여에 달렸다.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다행히 우리시는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3만6,68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해 안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시민의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이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안전사고는 더 이상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과거처럼 하늘의 탓으로 돌리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든 사회 안전망과 우리의 참여로 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기고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팀 장학관



오는 5월 말까지 각 대학별 수시모집요강이 확정·발표된다. 입시의 파도를 헤쳐 나가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은 지금 10대의 인생을 걸고 대입을 준비 중이다. 대입협 발표에 따르면 2026 대입 모집인원은 34만 5,179명으로 전년도 대비 4,245명이 증가했다. 수시 4,367명 증가, 정시 122명 감소해 모집비율은 수시가 소폭 상승(0.3%)했다. 수도권은 수시 7만 6,678명(65.4%), 정시 4만 2,693명(34.6%)이고, 비수도권은 수시 16만 9,966명(89.1%), 정시 2만 2,611명(10.9%)으로 전체 수시는 24만 6,644명(79.9%), 정시는 6만 5,304명(20.1%)이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모집인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목표로 하는 대학 권역에 따라 각각 다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수시와 정시의 균형 있는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으로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수도권은 정시 수능위주전형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다. 학생부교과는 대학별 반영교과와 반영방식, 환산방식이 다르므로 모집요강을 통해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과 필수응시영역 지정 여부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대학별 교과 반영방법이 다양해서 반영교과, 반영과목수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교과 반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지역

고3 수험생, 입시 변수 흔들리지 않길

균형전형을 운영하는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주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한다. 올해는 교과 이수내역, 교과 특기사항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했기에 이점도 참고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은 학생의 관심, 흥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하고, 각 대학별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변화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평가요소를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으로 개편한 점 등을 살펴보고, 면접이 있는 대학은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와 종합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유무에 따라 합격선이 나뉘진다. 따라서 교과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만 합격하는 대학도 많으므로, 목표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은 서울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권 대학의 비율이 매우 높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했다. 정시는 수능점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우선 자신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고, 공통과목의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므로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영어는 절대평가이므로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영역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올해 입시 변수이다. 먼저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5학년도 4,567명으로 1,509명 증원, 올해 2026학년도도 다시 3,058명으로 증원 이전으로 원점 복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학입시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런 고무줄 입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고3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현

재 고3 수험생들은 자신들의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 문제로 불안과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최근 2년간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진학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2025 증원, 2026 원복, 2027 대입은 과연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고교 현장 및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절박적인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고3 재학생(황금돼지띠) 증가(전국 4만여 명), 무전공(전공자유선택) 선발 확대 및 첨단학과 증원, 수능 과학탐구 필수 기준 폐지 대학 확대, 정시 다군 모집 대학 확대 등을 올해 입시에 변수들이 많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은 상위권 졸업생들의 수능시험 재지원으로 이어져 재학생의 수능성적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3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공략하고, 내신성적 관리,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수시 지원전략 등 자신만의 입시 로드맵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고3 수험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부디 입시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나아가길 바란다. 고3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 고교 시절을 함께 의지해온 친구들,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시고 진학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지켜주고 있다. 꽃들이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듯이 입시 결과가 모든 걸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꿈꾸며 보내는 시간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 시간들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부디 올해 입시가 끝나는 순간까지 힘내길 바란다. 나희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대를 앞에는 밝혀져 오는 불빛이 있고, 맞잡을 손이 있으니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 광주 고3 수험생들의 건투를 빈다.

사설

5·18 왜곡·편향 강력히 처벌하라

오월이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숭고한 가치와 연대의 힘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월 정신’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특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역사 왜곡·편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이는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현재와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본보가 5·18 45주년을 맞아 반복되는 역사 왜곡의 실태를 심층 보도하고 진실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5·18 왜곡은 주로 SNS 등을 중심으로 북한군 개입설, 무장 폭동, 가짜 유공자 등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세력화를 노리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518을 왜곡·편향한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5·18 역사 왜곡이 담긴 게시물만 2,000

여 건에 달했다. 지난 2022년 5월~2024년 5월까지 2년간 유튜브 영상의 댓글 등을 모니터링·분석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부적절한 발언이 무려 1만 건이 넘었다. 주로 무장 폭동, 북한군 개입, 가짜 유공자, 지역 혐오, 좌파 비난 등이었다. 북한군 개입이 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짜 유공자 622건, 무장 폭동 440건, 지역혐오 434건, 좌파 비난 383건 등이었다. 물론 이는 모두 가짜 뉴스다. 용서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이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편향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 왜곡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열배 백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6월 4일 들어설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산불, 광주·전남도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대구시 등에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경계음이 울리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 5건의 산불이 발생해 0.43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전남은 더 심각하다. 1월에 9건의 산불이 발생해 2.56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을 비롯해 2월 3건 3.34ha, 3월 14건 2.49ha, 4월 3건 0.95ha 등 올해 들어서만도 모두 29건의 산불이 발생해 9.34ha의 산림이 불타다. 시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처럼 산불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곡성·구례·순천·광양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를 시작으로 여수·장흥·강진과 함께 광주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건조주의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란 뜻이다. 앞서 지난달 경북 울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의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된 바 있는데, 작금의 건조주의보 발효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순천시 서면 판교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헬기 2대를 포함한 장비 15대와 인력 99명을 투입해 2시간 14분 만에 겨우 진화했는데,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이었다. 특히 최근 대구 합자산 산불에서 보듯 산불 양상이 과거와 달리 재발화하는 일이 잦고 광주·전남지역의 도시도 대부분 산을 끼고 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야간 운용이 가능한 최신 다목적 헬기를 시급히 확보하고 드론을 활용한 열·연기 감지와 함께 드론-헬기 간 연락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불은 한번 발생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변하는 일도 많다. 소방 당국의 비상한 대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산불 예방의 지름길이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사진 속 세상



어둠 밝히는 함안낙화놀이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무진정에서 ‘제32회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편집국장 박간재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